

# ‘이상적 연구 공간을 꿈꾸며 대덕으로’

-대덕 이전 건설 사업-

강학수, 김학년

## 홍릉은 만원

66년에 세워진 KIST 홍릉건물은 직원 1000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100년을 내다 보고 지은 건물이란 다. 연구소를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좋은 연구환경에 감탄사를 발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려한 경관, 우아한 건물양식을 가지고 있다. 식당, 연구실, 공작실, 주차장, 도장 등 모든 시설이 1000명 수준에 맞는 규모이다.

설립된지 거의 20년 세월 장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 KIST는 예상을 뛰어넘는 급속한 성장으로 연구규모, 연구인원, 연구장비 등 모든 면에서 적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었다.

홍릉연구공간은 가득차 버려 더 이상 들어설 공간이 없게 되었다. 연구장비는 복도에 세워지고, 식당의 식사 대기줄은 끝이 보이지 않게 되고, 주차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새로운 건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연구원들간에는 서로 많은, 보다 좋은 연구공간을 확보하려는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시스템공학연구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구원간 스페이스(연구공간)확보 전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쟁은 찻잔속의 태풍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러한 때(85년) 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던 정부는 KAIST(현 KIST와 과기원)가 대덕연구단지로 이주할 것을 적극 추진하였다. 85년 당시 성기수 소장이 이끌던 시스템공

학연구소는 이러한 정부 요구를 수용하고 대덕연구단지에서의 이주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기초설계는 건축전문가인 김문현 박사팀이 맡았다. 시스템공학연구소는 별도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대덕 건물 건설에 있어서는 KAIST대덕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KAIST 건설 본부에서 종합적인 건설 계획을 세웠고 시스템공학연구소 건설계획은 이의 일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스템공학연구소는 기초설계를 근거로하여 별개로 건물 실시 설계를 하였다. 설계자는 환경동인연구소(소장 전찬진)였다. KAIST학사부 건설설계회사와는 달랐다. 이것이 곧 현 KAIST건물과의 근본 차이를 가져온 원인이다. KAIST 건설 계획속의 시스템공학 연구동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위치 선정에 있어 여러번의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KAIST 건물 건설위원회는 건물의 위치를 현재의 유전공학동이 있는 곳으로 내정하기도 하였으나 교육동 연구동의 균형배치상 현재의 위치로 결정되었다. 이 바람에 남향으로 서야 할 건물의 입구가 동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 머니면 따듯한 남쪽나라

대덕에 시스템공학연구소 연구동 건설계획이 세워지면서 우리 연구원들은 대덕연구단지에 새로운 등지를 틀 꿈에 차 있었다. 홍릉에서의 가장 열악한 연구시설에서 한뼘이라도 더 많은 연구공간을 차지하려는 공간확보 전쟁이 끝난다는 기대에 차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건물이 대덕에 세워지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대덕으로 주거를 옮긴다는 구체적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연구소 직원 450여명 중 절반수준인 232명(정부예산 TO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대덕에 건설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시스템공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상당부분의 연구가 수도권 스폰서(연구위탁자)들이어서 홍릉에 연구실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도 있었다. 대덕으로 건물을 지어 이주하더라도 연구원의 절반은 홍릉에 남도록 되어 있었다.

건설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86년에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돼지머리는 입을 벌리고 멋진 건물을 지어주리라고 약속하는 듯 우리들의 절을 받아주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점은 KIST(당시 KAIST연구부)가 87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대덕 이전을 포기하였다는 점이다. 시스

템공학연구소는 KIST와는 달리 건설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였으며 87년에 시공하여 3년여에 걸쳐 지은 건물은 90년대 초 거의 완공하기에 이르렀다. 건물이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머나먼 남쪽나라 따뜻한 곳에 지어지는 미래의 보금자리인 연구소 건물을 감상하기 위하여 소풍나들이 하듯 방문하곤 하였다. 때론 버스로, 때론 봉고로, 홍콩의 비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넓고 탁트인 곳에서 곧 근무하게 된다는 푸른 꿈을 안고서, 대덕의 새로 지은 건물을 둘러본 연구원들은 만족한 표정이었다.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게 지어진 건물이었다.

단일 건물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표정이었다.

연구단지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이는 슈퍼컴퓨터 CRAY 2S의 외형을 닮았다는 이 건물은 어느 것 하나 성기수 박사의 정성이 담기지 않은 것이 없다. 외형이 그렇고, 슈퍼컴 전망유리가 그렇고, 8층의 오피스텔이 그렇다. 건물 이외에도 시스템공학연구소의 대덕건설에 그가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은 복리후생시설이었다. 연구소 부지에 세워진 테니스코트, 축구장, 농구장, 탁구장 등이 그것이다. 그는 건물 지하실에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다 허기를 느낄 때 쉽게 이용할수 있는 분식점(현재 SERI식당)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원래 식당은 KAIST 종합 건설 계획에 포함된 대형 식당으로서, 현재 KAIST 학생회관내 학생식당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식당 100평의 지분을 현재 SERI가 가지고 있다), 아담한 강당을 만들어 세미나나 연구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건물 지하실에 수영장을 구상하기도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수영장을 만들지 못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그는 국제 공동연구, 세미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회의실(현재 연구실로 사용)과 리셉션 공간을 건물 2층에 마련하는 등 한곳에서 연구, 세미나, 침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 건물을 만들었다. 이 외에도 그는 과학자 아파트, 독신자 숙소를 마련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복합건물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러한 형태의 건물이 아닐까.

건물의 구석구석에 그의 정성과 아이디어로 가득차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디 그뿐인가. 그는 건물 외부조경을 가꾸는 데에도 그의 철학을 듬뿍 넣어 두었다. 여러 가지 많은 나무를 심고 토착 식물들이 마음껏 자라도록 하였다. 석류나무, 은행나무, 밤나무, 잣나무,

전나무, 진달래, 개나리, 아카시아, 버드나무, 대나무 등 수많은 나무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 야생의 대화를 나누도록 하였으며 개망초, 달맞이꽃, 썩, 크로바 등 토착식물이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가꾸었다. 사시사철 이러한 식물들이 연구소 주위를 감싸고 있어 연구원들의 피로를 덜어 주고 있다. 건물의 실내에 있으면 마치 깊은 산속의 별장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특히 여름이 되어 이러한 식물들이 그들의 가장 찬란한 옷을 입게 되면 더욱 그렇다.

## 모든 정을 뒤로 하고

90년초 건물이 완공되어 그해 5월, 드디어 부지 30,000평(87년 당시 SERI는 이 건설부지 외에도 별도로 발전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곳에 한빛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연건평 4,500평, 8층 신축 건물(건설비 약 100억원)에 이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주 당시에는 원래의 계획대로 200여명이 이주하고 나머지는 홍릉 연구단지와 강남본소에 근무하도록 하였다.

교육 및 수탁연구를 주로 하는 교육센터, 소프트웨어공학부, 생산자동화연구실, OMR연구실, DB연구실, 컴퓨터지원부서 등이 서울에 남고, 특정연구, 기초연구를 주로 하는 인공지능, 지구환경, Remote sensing 부서들이 대덕 이전의 선발대로 나뉘었다. 그들에게는 OA사무비품과 넓은 사무공간이 제공되었다. 홍릉의 연구실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

대덕 이전 연구원에게는 이주비, 지방근무수당, 임시 주거숙소 등이 제공되었다.

이는 성기수 소장의 크나 큰 배려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대덕에 이주한 우리 모두는 그의 후덕에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대덕으로 이사오는 우리들은 마치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과 서운함으로 가득 찼다.

홍릉 연구소 건물 앞에 펼쳐진 탁트인 비단결 같은 잔디, 금붕어가 넘실대는 연못, 연구동을 둘러싼 소나무숲 산책로, 봄·여름·가을 우리의 다정한 친구였던 개나리, 진달래, 철쭉, 벚나무를 뒤로 하고 우리는 대덕으로 떠났다. 젊음을 불살랐던 홍릉연구소의 본산지를 뒤로 하고 우리는 떠났다. 대덕으로 이주하여 온 연구원들은 처음에는 불안정하고 방황하는 정서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어떤이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선술집으로, 노래방으로 전전긍긍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정상을 찾

기에 이르렀다. 대덕생활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정들었던 홍릉 연구원의 이별의 아쉬움을 매울 수 있게 되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대덕 시스템공학연구소는 이제 제2의 연구 고향으로서 우리 연구원들의 꿈을 키워 갈 것이다.